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성경말씀: 왕하5:1-14

도입

인생은 문제의 연속

많은 문제 중에서 영원과 관계된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잠정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 또 실제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알아도 자기 방법대로 풀려고 한다.

엘리아를 뒤이은 엘리사 시대, 그에게 여러 문제를 가지고 왔다. 기적의 대언자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1)

시리아의 벤하닷 2세의 장군, 나아만 장군, 국방 장관

멋진 갑옷 밑에는 나병이 도사리고 있었다. 11절에서 보면 한 군데에만 있는 것 같았다.

나병: 율법 시대에는 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출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출회된 사람이었다.

‘그러나’(But)에 유의해야 한다.

인물, 재물, 학식, 명예, 자손, 배우자, 자식, ‘그러나 나병환자더라’.

문제를 인식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잘못된 판단(5)

이스라엘 소녀의 딸, 사마리아의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

나아만의 오관: 왕의 편지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 사람의 지위나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는 마음(행8장)

소녀는 ‘엘리사에게만 가면 나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믿음이 있다. 신분은 천하지만 지혜로운 아이가 여기에 있다.

모두가 죽는다. 왕이든 종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로워야 한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오관: 나와 전쟁을 하려고 왔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지명하여 병을 고치게 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일단 자기의 권력 유지에만 신경을 썼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8)

내게로 보내소서.

왕은 왕좌에 있었으나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대언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

내 생각이 문제이다.

나아만의 기대는 빗나갔다.

엘리사는 단순히 사자를 보내 ‘요르단 물에 일곱 번 씻으면 나으리라’고 말했다.

나아만의 분노, 내 생각에는(11절): 오순절주의자들의 행태: 내려친다.

이것이 문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을 굽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 우주의 창조자에게 나와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다. 요르단 강이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보다 못하다.

그 더러운 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 생각:

선악과, 사랑이라면 모두 구원해 주면 되지 않는가? 왜 굳이 십자가인가? 말이 안 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사55:8-9).

십자가를 선포함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고전1:22-24).

킹제임스 성경, 완전한 성경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성경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자 목사, 집사는 안 된다(딤후3:2, 11).

침례와 세례, 내 생각에는, 록 음악, 내 생각에는...

참 지혜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나아만의 종들의 말(13절)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종들이 더 지혜롭다.

구원을 준다고 하면 돈도 100억 바치고 차도 바치고 물구나무서기를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바란다. 그것이 믿음ियो, 은혜이다.

지혜로운 사람

누구나 고집을 피울 수 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을 잘 포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와 내 아내의 일들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14절).

사명을 받은 사람

그는 곧바로 시리아로 돌아가지 않았다.

적어도 50킬로미터나 떨어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15절).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 감사의 대상을 안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대언자는 전혀 받지 않는다. 목사 역시 필요한 것 외에 더 받으면 안 된다.

흠을 조금 가지고 갔다. 어떤 곳의 신은 땅에 거한다고 믿었다.

어찌 되었든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엘리야 신약에 29회, 엘리사는 1회(눅4:27), 이방 사람, 이스라엘 소녀를 인질로 데려간 자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나아만만 회복되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분노

많은 종교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한다.

결론

당신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 생각대로 하려 하는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담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